



연중 제28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소유와 포기 그리고 그로부터 자유로움

예수님은 풍족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출생 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한 이들이 바치는 제물을 성전에 바치고 있는 모습만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루카 2,24).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궁핍한 생활을 하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에서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여인들이 있었고(루카 8,1-3), 제자들과 공동의 돈주머니가 있었으며 그것은 필요한 것을 사거나 자선을 베풀 수도 있을 정도였다(요한 13,29).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과 다르게 금욕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으셨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은 결핍을 감수하는 삶도 아니었고, 풍족하여 넘치는 삶도 아니었다. 이러한 주님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 온전히 자유로웠다는 데에 있다.

오늘 복음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생활 양식을 알려준다. 소유의 삶과 포기의 삶이 그것이다. 소유의 삶은 오늘 복음에서는 나타나지만 십계명에도, 병행 구절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계명, “횡령해서는 안 된다”로 설명되는 삶이다. 재물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것을 소유하고, 그에 대해 감사하고, 양심적으로 관리하며, 유익한 일에 사용하고, 곤궁에 빠진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삶이다. 포기의 삶은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 복음에서 질문하는 이는 응답하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개인적인 부르심과 자발적인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포기의 삶이다. 소유의 삶이든 포기의 삶이든, 관건은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의 자유로움에 얼마나 참여하는가에 달려있다. 소유에 집착하거나, 포기한 것에 대한 보상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자유로움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 자유로움은 서약이나 서품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자선의 행동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빵의 기적을 두 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빵이 없다고 수군거렸던 제자들처럼(마르 8,16-21), 예수님의 자유로움은 특별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계속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물질적인 필요를 가지게 되는 지상의 조건 안에서 우리들은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이 분명하다. 예수님의 자유로움이다. 무엇을 소유했지만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자유롭고(1코린 7,29-31),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는 자유로움(펠리 3,8)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이강현 베드로 신부 | 삼천포본당 주임



제 1 독 서 지혜 7,7-11
화 답 송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제 2 독 서 히브 4,12-13
복 음 마르 10,17-30 또는 10,17-27

주일 진레

기도는 “하느님 안에서 편히 휴식하는 길”입니다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날마다 기도를 바치고 있지만 정작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 기도에 대해 조금 공부한 이들은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기도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만, 정작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혼자서 많은 말을 하며 기도를 바친다. 청원기도, 감사기도, 탄원기도, 찬미기도 등으로 분류하면서 청원보다는 찬미를 많이 드려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다. 염경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등으로 기도를 나누어 설명하면서 때로는 염경기도는 낮은 수준의 기도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지루하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기도를 바치는데, 저는 고작 화살기도 정도밖에 바치지 않아요. 이래도 되나요?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먼저 기도로 일생을 살아간 성인들의 기도에 대한 정의를 들어보자. 사막의 교부 성 안토니오는 기도를 “하느님의 친구가 되는 친밀함”이라고 정의했다. 성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기도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했다. 성 요한 가시아논은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라는 단순한 구절을 반복하며 하느님을 자신의 모든 삶에 초대하는 것을 기도라고 보았다. 요한 클리마쿠스 성인은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는 고요함”이라고 말하였다. 성 베르나르도는 기도를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노리치의 은수자 줄리안은 “기도는 어머니 같은 하느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는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 지냄으로써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토마스 머튼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의 편안한 휴식으로써 안식과 같다”고 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기도에 대한 묘사들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기도는 우리가 뭔가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많은 성인들도 우리처럼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도를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고요히 기도 가운데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영적인 쉼을 체험한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의 품에서 평화와 위로를 체험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사랑하는 하느님과의 사랑의 일치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무거운 짐이나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안식’이요 ‘쉼’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느님과의 사랑의 일치 속에 머무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관상(觀想, contemplation)이라고 한다. 염경기도, 묵상기도, 전례기도 등 모든 기도의 방법들은 관상, 즉 하느님과의 사랑의 일치에 그 목표가 있다. 이 예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관상적 체험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체험이기도 하다.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이다. 그분 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적인 안식과 쉼의 시간인 것이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신 다음, 이렛날에는 쉬셨던 것처럼 기도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느님 안에서의 쉼’이 그 목표이다. 우리의 기도와 묵상(Meditation)은 자신의 존재의 심오한 곳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찾고 신앙과 경이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하느님과 만나는 준비인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느님과 함께 낙원에 머물며 아무런 부끄럼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처럼, 기도는 모든 ‘나의 것’을 멈추고, ‘이미’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신비 속에 들어가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낙원에서의 편안한 쉼을 얻을 때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쉬는 기쁨이요 평화로운 시간이며, 하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은총의 때이다. 기도는 밀린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의무감에서 혹은 무수한 자신의 바람을 아뢰며 기계적인 기도를 바치고 있는 우리는 기도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깨우쳐야 할 것이다.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자.



가톨릭성가 피아노 연주 10 순교



가톨릭성가 중에서 사랑받은 노래를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각으로 편곡, 연주한 앨범.

2018년부터 꾸준히 소개하여 가톨릭성가 피아노 연주 시리즈 열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에 이르렀으며 이번 앨범에는 순교와 관련된 가톨릭성가 2곡을 수록하였다. 익숙한 성가 멜로디를 새롭게 느낄 수 있다.

- 아티스트: 피아노 박종미
- 대표장르: 가톨릭성가, 연주

엄마 일기

공감과 이해, 위로를 건네는 육아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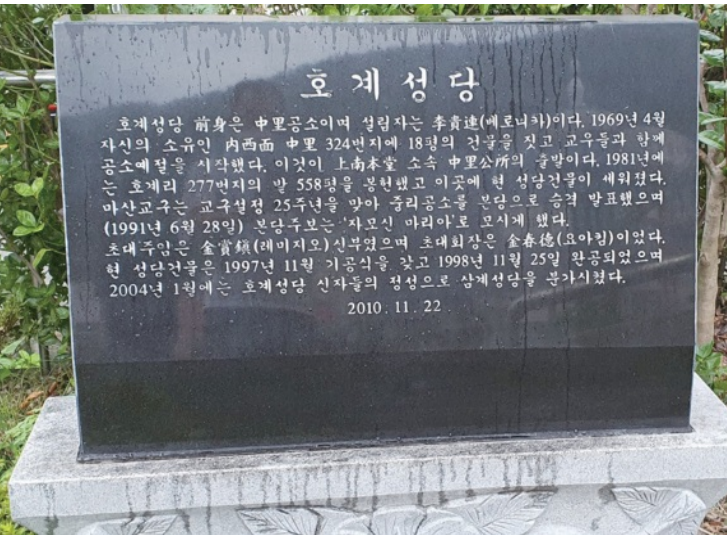
생명을 잉태한 순간부터 아이를 낳고 돌보면서 만나게 된 다양한 에피소드와 그를 통해 가지게 된 생각, 기도, 행동 등을 생생하고 진솔하게 담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지은이가 2014년부터 2020년에 걸쳐 <이지혜 기자의 엄마 일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연재한 글을 보완하여 엮은 책이다.

- 출판: 바오로딸
- 지은이: 이지혜



세대를 잇는 마중물로 다솜 가득한 호계성당

이준호 라파엘



귀연, 나눔의 귀한 인연이 시작되다

호계성당 성전으로 가는 초입에 비석이 하나 서있다. 중리공소에서 호계본당이 있기까지의 소중한 약사가 기록되어 있다. 비석을 지나 램프를 돌아서 오르고, 생동감 있는 호선을 따라가면 편안함이 스며든다. 어느 성당이 다 그렇겠지만 호계성당의 성전은 더욱 차분하게 느껴진다. 자리들이 질서 정연하게 부채꼴로 펼쳐진 곡선들과 십자가의 직선이 합일되고 시선이 집중된다. 오로지 십자가로 눈과 마음이 향하는 가운데 성수같이 맑은 신심이 샘솟는다. 성당 건축물에서 배어나는 이미지에 어울리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스토리, 사람의 향기 넘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한다. 호계본당 주임 신부와 사목회장, 그리고 함께한 교우들이 들려준 이야기이다.

때는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귀연 베로니카 할머니가 중리공소를 짓기 위한 부지를 내놓았다. 이른 새벽부터 생선장사를 하며 어렵사리 장만한 땅이었다. 그렇게 지어진 공소가 18평이었지만 베로니카 할머니는 이후에도 558평의 밭 부지를 봉헌하였다. 모든 것을 인간에게 오롯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은 덕행이었다. 베로니카 할머니의 고귀한 나눔의 시작 없이 어찌 호계성당의 역사를 거론할 수 있겠느냐는 정운호 베드로 신부의 말이 이어진다. 성당에 대한 역사인식과 애정이 넘친다. 마르지 않을 샘물의 첫 마중물은 베로니카 할머니의 고귀한 나눔으로써 시작되었다.

신앙공동체의 꽃이 활짝 핀 호계성당

1991년은 호계본당으로 승격되던 해다. 마침 교구설정 25주년이었다. 1998년 11월에는 지금의 성전이 완공되어 봉헌식을 가졌다. 당시 성전기금 마련을 위해 벽돌 한 장 값이라도 더 벌고자 신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밭 벗고 나섰다. 통닭집 폐유를 모아서 손수 비누를 만들었고, 그 비누를 팔기 위해 교구의 성당들을 찾아다녔다. 당시 30대 전후의 신자들은 직장생활과 육아를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비누를 팔러 다녔다고 문창복 엘리시오 사목회장은 회상한다. 올해로 30주년이 된 본당에 대한 감회가 무척 새롭다고 했다. 서로 격려하며 힘을 보태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이후로도 교우들의 동참은 계속되었다. 노출콘크리트 기법으로 성전 안팎을 짓는 과정에서 신자들은 직접 콘크리트물을 붓고 다지는 작업에 함께했다. 남의 일쯤으로 여긴다든지 ‘누군가는 해주겠지’ 하는 생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성당엔 누수 한 번 없었을 정도로 신자들의 정성으로 빈틈없는 성당을 가꾸어 올 수 있었다.

2004년 또한 잊을 수 없는 해다. 삼계성당이 호계성당으로부터 분리된다. 본당 승격 후 13년이 흐른 즈음 내서 지역의 두 번째 성당이 탄생한다. 호계성당의 역사를 함께한 교우들의 감격과 자부심이 더불어 느껴지는 듯

했다. 기록치 않았던 시절을 함께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분가를 이뤄낸, 말하자면 신앙공동체의 꽃이 활짝 핀 결실이었다. 삼계성당의 건립에는 모본당에서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더해졌다. 큰집과 작은집을 칭하며 두 성당은 이후로도 단합대회 등 여러모로 함께하며 나란히 걸어왔다.

올해 본당설립 30주년의 해를 지내며 호계성당은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정운호 베드로 신부는 이제 50주년을 바라보며 지금의 신앙공동체는 어떤 마중물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또 다른 베로니카 할머니가 되고자 하는 정신으로 살아야겠죠. 역사라는 것은 기술하는 사람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잊힌 역사이고 인물이었던 베로니카 할머니를 재조명하며, 드러내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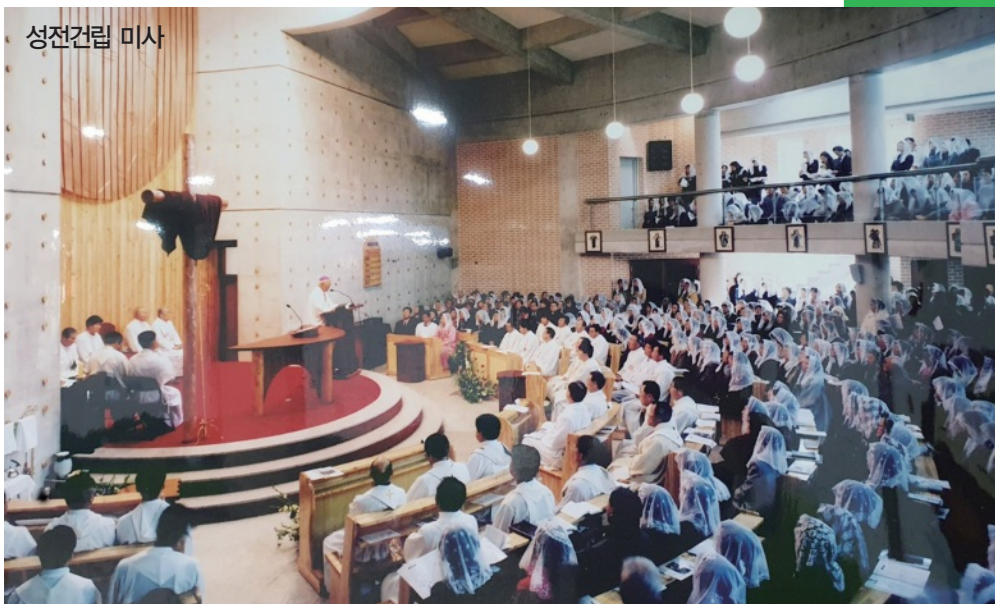
‘드러내지 않는 삶’이라는 대목에서 사목 방향이 묻어났다. 작년에 성모의 밤 행사와 성탄절을 맞이하여 ‘한부모 가정 돕기’와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돕기’ 활동을 하던 일, 또 지역의 거점병원에 마스크를 나눠 주었던 사연들을 소개하였다. 밝히고 싶지는 않은 사연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것이며, 사진 같은 것은 애초부터 찍지 않았다고 했다. 애써 드러내려는 행동이나 수량으로써 부각하는 일은 중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 4단계가 되어 미사를 거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우들이 주일헌금을 모두 보내왔다고 사목회 총무가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묵묵히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신앙인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미 양적인 수치가 중요한 시대가 아님을 공감하였다. 코로나 시대가 역설적으로 알려준 교훈일 것이라고 하였다. 묵묵하게 마음으로 이어진 신앙공동체의 존재가 그것이다.

본당주보 ‘자모신 마리아’의 따뜻함을 따라 사목위원들은 성당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반갑게 먼저 인사하고 맞이한다. 사목회장은 본인도 처음 호계성당에 왔을 때, 반겨주며 레지오로 이끌어 준 그 시절의 선배들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각 신심단체를 통해 신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로써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고 있기에 젊고 활력 있는 본당이라는 평을 듣는다.

다시 램프입구의 비석에 서 보았다. 드러나지 않아도 향기롭게 우뚝 서있는 호계성당의 역사와 스토리가 있었다. 비석 앞에서 보았다. 이귀연 베로니카 할머니의 마중물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와 미래로 향하고 있음을.

성전건립 미사





교구장 동정

추계주교회의

일시: 10월 11일(월)~15일(금)
장소: CBCK

교리교사의 날 파견미사

일시: 10월 17일(주일) 14: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본당

수신본당 설립 25주년 기념미사

일시: 10월 10일(주일) 10:30
▶코로나로 인해 손님을 맞지는 못하지만,
저희 공동체를 위한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34회 교리교사의 날

일시: 10월 17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청년 교리연수(비대면)

일시: 10월 23일(토) 13:00~18:00/
10월 24일(주일) 13:00~16:30
주제: 교회의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대상: 청년, 선착순 15명 마감
준비물: 'ZOOM'이 가능한 장비, 필기구

참여방법: 'ZOOM' 프로그램 접속(연수 전일 'ZOOM' 주소 문자 안내)

신청: 10월 17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채널 '@청년부'

2021년 성소육성회 정기총회

일시: 10월 24일(주일) 14:00~15:00
장소: 교구청 4층 회의실
대상: 성소육성회 임원 및 회원
신청: 10월 17일(주일)까지
문의: 성소국 055·249·7061

▶유의사항

신청마감일을 지켜 주시고, 참석인원을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신청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 열 체크 및 전자출입부명부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희운(안드레아), 안영화(엘리사벳)
담당판사: 김정훈(도미니코) 신부
장소: 교구 법원
일시: 10월 14일(목)까지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10월 기도모임 (기도 및 특강)

일시: 10월 18일(월) 13:00~17: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코로나19 외국인주민 통역 서비스

교구 내 외국인주민의 코로나 확진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일터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선제검사와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외에도 본당 내 외국인주민들과 기업체 외국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창원이주민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가능언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인도어, 터키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테툼어)

문의: 교구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0월 16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마 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백 합 식 품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정 맛 백합 매주, 원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본사 053)857-2037 서울 02)02-2202-8392 대구 053)257-1771 http://spcfood.co.kr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	---	--	--



일 립

기 타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2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문: ①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 10월 14일(목)~12월 14일(화)

접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cafl@cbck.kr)

문의: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02·460·7533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문의: 010·2133·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2022학년도 학교법인 성지학원 중등학교교사 임용경쟁시험 공고

2022학년도 학교법인 성지학원 중등학교
교사 정규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생물(1)

근무예정학교: 해성고

응시원서 및 접수: 10월 25일(월)~29일(금)
09:00~18:00, 5일간

문의: 055·240·8884

※ 구체적인 시험일정 및 방법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성지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故 김영식 알로이시오 신부 2주기 추모미사

일시: 10월 19일(화)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주례: 서정범(요한) 신부

마산교구 법원 이용 안내

혼인과 관련된 일들로 성사 생활이
어려운 신자들은 교구 법원으로 연
락하십시오.

"교구 법원은 신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010·7123·4506



제25회 가톨릭 미술상 공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는
제25회 가톨릭 미술상 후보작을 10월 31일
(주일)까지 공모한다.

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 가톨릭교회 미
술의 발전과 토착화를 위해 지난 1995년
가톨릭 미술상을 제정, 현역 미술가들의
근래 작품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해 부문별
로 시상하고 있다.

▶응모 접수, 자세한 사항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참고 및
문의(02·460·7647) 하면 된다.

세계 초연 오페라 <길 위의 천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법인인 (사)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1821~1861년)의 탄생 200주년 기념작인 박영희
작곡가의 오페라 <길 위의 천국>을 공연한다.

최양업 신부(1821~1861)는 1836년 15세의 나이에 마카오로 가서
사제가 되기 위한 신학 수업을 하였다.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서양
문물과 학문을 접하면서, 조선 시대의 봉쇄된 세계에서 벗어나,
서양 문화를 적극 수용한 선구자의 삶을 살았다.

•오페라 <길 위의 천국> 세계 초연 일정은 11월
12일(금)~13일(토) 청주 예술의전당, 11월 20일
(토)~21일(주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1월 23일(화)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갈라 콘
서트)이다.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돌아간 모세(탈출 4,18~10,29)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 게르숨과 엘리에제르를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탈출 4,20). 이집트에서 미디안으로 달아날 당시의 모세의 여정은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어둠과 절망이 뒤섞인 여정이었다면,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여정은 하느님의 초대로 시작된 여정이기에 여전히 미지의 길을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의 가족을 따라 걷는 우리의 발걸음도 가볍기만 합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만난 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그를 마중 나온 형님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원로들을 만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4,29-31). 오랫동안 권력의 압제를 받았던 이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권력에 굴종하거나 협력하는 길을 선택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권력에 반기를 들고 해방을 도모하는 일은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일로 여겨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해준 하느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인 동시에 위험한 소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노예살이의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시작하려면 이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일으킬 갖가지 이적으로 그들을 이런 믿음으로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파라오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파라오를 만나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5,1). 그러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파라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욱 모질게 박해합니다. 벽돌 제작에 필요한 짚을 제공하지 않은 채 같은 양의 벽돌을 생산하게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작업 조장들은 파라오에게 불평하였지만, 상황이 변화되지 않자 모세와 아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이런 상황을 하소연하자 하느님께서 결국 파라오가 주님의 강한 손에 밀려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6,1 참조).

탈출 7-10장은 하느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일으키신 아홉 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일어난 세 가지 재앙은 피와 개구리, 모기의 재앙으로, 이 재앙 이야기들은 하느님과 그의 종들이 파라오의 종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 재앙에서 이집트 마술사들은 경쟁에서 지고, 이 재앙이 하느님의 손가락이 하시는 일임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세 가지 재앙은 등애와 가축병, 종기의 재앙이며, 재앙이 이집트인들에게만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이 재앙들은 이집트인들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재앙(종기)에서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종기에 걸린 나머지 다시는 모세와 아론과 경쟁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난 세 재앙은 우박과 메뚜기, 어둠의 재앙으로, 이런 재앙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이 재앙들은 비교 불가능한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여덟째 재앙(메뚜기 소동)에서 파라오의 신하들은 파라오가 졌음을 알아차리고 파라오에게 포기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기까지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처럼 그의 궁궐은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서만 빛이 있었습니다(10,23).